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8, 2021 Vol. 787

“미주 한인교회, 청교도 신앙으로 영적 대각성 일으키자!”

11월 15일(월)– 20일(토), 청교도 신앙 회복 위한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집회 개최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오는 11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JAMA와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대표 한기홍 목사, 김춘근) 주관으로 개최된다.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진행되는 대각성 집회는 미주 전역에서 12명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청교도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번 부흥성회는 미국의 각 도시의 교회협의회와 목회자협의회가 주최 단체가 되어 소속 도시의 교회들이 영상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마 김춘근 교수는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다”며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미국을 바로 세우고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 자료사진.

부흥성회 설교 주제는 △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하나?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청교도의 말씀 사랑 △청교도의 기도 생활 △청교도의 차세대 신앙 전수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미국 △청

교도의 청지기 정신 △청교도의 교육 △청교도의 예배 개혁과 주일 성수 △일터에서의 청교도 △청교도의 가정 사역 △청교도와 리더십 등 청교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번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강사로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양준길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위성교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나성순 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달라스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 준 목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목사, 자마 김춘근 교수가 나선다.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강순영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청교도 신앙을 통해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소원한다”며 “미주 한인교회가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무너져가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 받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대각성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각 교회 혹은 개인별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흥회가 진행되는 6일 동안 유튜브에서 ‘2021년 청교도 신앙회복 온라인 부흥회’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남침례회 전 집행위원장, 러셀 무어 목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남침례회 총회장 후보였던 마이크 스톤 목사 ⓒ마이크 스톤 목사 제공

마이크 스톤 남침례회 전 집행위원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러셀 무어 전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톤 목사는 18일 테네시 지방법원에 무어의 발언이 자신의 교단 회장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서적 고통이 발생했다”며 “75만 불을 배상하라”

는 소장을 냈다. 그는 현재 조지아주 블랙셔에 위치한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담임하면서 브랜튼우드에 본부를 둔 법률 자문 회사인 ‘콜 로 그룹(Cloe Law Group)’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단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테네시 지역 언론 매체인 ‘테네시언’은 소장이 지난 5월 ERLC를 사임한 무어가 쓴 편지가 유출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톤은 소장에서 “무어가 ERLC와 교단 내에 전략적으로 오펜된 두 편지를 통해 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이고 도덕적이며 악독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한 “무어의 거짓 진술로 인해 종교계에서 원고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졌고 사업 운영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목회에 있어서도 교회 출석, 헌금 및 사례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어는 2020년 2월 ‘릴리전 뉴스 서비스(RNS)’에 유출된 첫 번째 서한에서 남침례회 집행위원회가 자신을 “심리적 테러”속에 살도록 몰아갔다고, 자신과 가족이 교단 지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무어가 이끌던 ERLC가 인종 정의 및 교단 내 성학대 혐의에 대한 처리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언론에 유출된 또 다른 서한은 지난 5월 무어가 당시 교단 총회장인 J.D. 그리어에게 쓴 것으로, 교단 지도자들이 성학대 위기를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무어 전 위원장은 서한에서 “당신과 나는 모두, 집행위원회 지도부인 마이크 스톤 및 그의 동료들과 전 부회장인 오지 보토가 성학대에 대한 많은 개혁 시도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들은 스톤 목사가 교단 회장 선거에 출마한 2021년 6월 연례총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유출됐으며, 이후 그는 애드 리튼(앨라배마주 리텐션 교회 담임) 당선인에게 패했다. 무어가 편지를 쓸 당시, 스톤이

이끌던 집행위원회는 그가 교단의 정책 기조와 역행한다는 우려 가운데 ERLC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무어가 사임하지 않을 시, 교단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를 보류하겠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소장에서 스톤은 무어의 서한 유출이 조사 활동을 주재한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톤 목사는 “2020년 특별 ERLC 대책본부가 내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뻔뻔하고 입증 가능한 거짓”이라며 “이번 공격은 러셀(무어)의 지도력이 남침례회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분열과 혼란의 원천이 되어왔다는 사실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칼라프린트/알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오병익 목사 선출

제19회 정기총회 개최, 본국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협력 다져



남가주벨렐교회에서 개최된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9회 정기총회 ©기독일보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9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남가주벨렐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지역 대의원들을 비롯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상문 목사, 총무 이강준 목사도 참석해 한국 총회와 협력을 다졌다.

임원 선출에서는 신임 총회장으로 오병익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벨렐교회), 부총회장에 장동신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오늘의 목양교회)가 선출됐으며, 서기 강양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세안약교회), 부서기 박환우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애리조나교회), 회의록서기 임희철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더나누는교회), 회계 이종식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한길교회), 부회계 김형민 목사(캐나

다지방회, 캐나다축복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는 김영일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더섬기는교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마지막 3년차 총무로 섬기게 됐다.

또한 캐나다 지방회를 동부와 서부로 분리하는 안건이 수락됐고, 각 지방회의 정기지방회 시기를 매년 7월 중 소집하기로 했다. 또한 미주총회 내 이종교적에 따른 교직자들의 대의원권은 허락하되 피선거권을 제한시켰고, 내년 미주총회 20주년을 준비하는 20주년 특별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미주총회의 위상과 격에 맞는 다채로운 대내외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1부 예배는 전임 총회장 송영진 목사의 인도로 장동신 목사(미국 동부지방회장)가 기도하고 양홍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상문 목사가 "주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롬16: 10)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문 목사는 "바울이 인정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설교 이어 이윤수 목사(미국 서부지방회장)의 헌금기도, 공로패 수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윤석형 목사의 축하 영상, 교단 총무 이강준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미주총회 전 총회장 박용덕 목사가 축도했다.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위로금으로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에게 500달러를 전달했으며, 개척지원금으로 각 지방회별 1000달러,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욱 기자

LA 방문한 전광훈 목사 "문재인의 평화협정,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하라'는 말"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소개하는 전광훈 목사와 통역하는 양메리 선교사 ©기독일보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 해체로 제2 아프간 사태 야기 복음 통일이 한반도 자유와 번영 이끌 것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혁명당 대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3일 LA 가든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미동맹 수호를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와 같은 말"이라며 "북한은 항상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가지고 대한민국 침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곧 제2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미국,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해양자유동맹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공산 대륙동맹으로 가려고 한다"며 "문재인

은 북한의 대리인으로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통해 미군철수의 조건을 만들어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이어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란 말로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키며 복음 통일로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세계기독교도모임 미서부지부(지부장 김영구 목사),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 미주청교도 영성훈련,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등이 주최했다.

김동욱 기자

"위탁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위탁아동을 위한 선물 꾸러미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셜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전해 주셔서 지난 6년간 위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많은 한인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미리 등록된 물품을 선물로 보낼 수도 있다. 문의는 sslee@kfamla.org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kfamla.org

한인가정상담소, 11월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가 11월 한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은 11월 한달간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4일 열리는 연말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 | | | |
|--|------------------|---------------|--------------|
| | | | |
|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 Righteous Outlaw |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 박상원 목사 책의 면지 |
| <p>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신도단), 주성태목사(성경연구원),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이윤복목사(주일미주교회),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주일미주교회), 신진영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통일교회), 김민석목사(KCC공동교회)</p> <p>* 열의 책은 아베 연례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p> | | | |
| <p>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지천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공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역사 복음통일의 관주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p> <p>*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p>기독교 동질성 Gideon Brothers Ministries World</p> <p>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p> | | | |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1 Heal Our Land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Pray for revival! Pray for America! Pray together!

Oct 29 Pray together 2021

2021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2021년 10월 29일(금) 7:30~9:30(PM)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 관

주 최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은혜한인교회

참가단체

현장중계

각지역 교협, 각지역 목사회, CMF, Soon Movement, 시온산재단, KACC, 세기모미스바기도운동, 미주 한인재단, America 한인재단, OC장로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 유튜브 방송

당일 교회 금요기도회에 교회별로 영상중계(YouTube :2021다민족기도회)를 통해 함께 동참해주시요.

문의: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이효상 칼럼] 504주년 종교개혁주간을 앞두고

종교개혁, '나로부터, 우리부터' 개혁하는 현재진행형 운동

코로나 상황에도 종교개혁의 달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일부 목회자나 평신도들 사이에서 "종교개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정말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일까. 사실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과 현실안주에 빠지면 답이 없다.

'종교개혁의 달' 10월은 개혁교회의 역사를 되새기며, 어제를 잇는 오늘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일을 만들어 가는 의지를 다지는 또 하나의 장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불씨이자, 불꽃이었다. 부패하고 타락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풍조에 성냄으로 불을 확 그은 것이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개혁'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회 공인 이후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부패와 매너리즘에 빠지며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성직 매매와 수도원(수녀원)의 타락, 교회의 세속권력 추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행위 등으로 '교회다움'을 잃어갔다. 중세를 '암흑기'라 함은, 교회의 안정을 원하는 일부 성직자들이 왕권과 결탁하며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 내 부패를 개혁하려 1074년 첫걸음을 내디딘 그리고리 7세는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 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 스스로 교회 됨으로서 그 자체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74년, 교회의 개혁과 성직자의 자정을 위한 도덕적 개혁의 나팔을 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오랜 세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으며 권위가 추락하고 힘을 잃어갔다. 특히 루터 이전 경건한 수도원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개혁의 열망은 교회를 사랑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퍼져나갔다.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사보나롤라, 발도파 등 시대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의 시도가 있었다. 권위와 부패로 물든 시대에 개혁자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주셨다. 그것이 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

그 사명 앞에 개혁자들은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개혁하기를 원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노출하고, 스스로를 뜯어고쳤다. 그러기에 취리히, 독일, 프



영화 <루터>의 한 장면

랑스, 영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504년 전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개혁 정신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발도파의 경우 비대해진 교회의 사치와 부 축적으로 대중에게 비판받던 부자 교회, 귀족교회에 경종과 개혁의 메시지를 던졌고,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타락의 증표로 보고 신앙을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임을, 츠빙글리도 루터처럼 면죄부와 교회의 세속적 부패를 비판하며 '교회다움'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시작한 '개혁교회'의 출발이인 '개혁 정신'이 실종되고 '개혁'을 거부하는 교회라면, '개혁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개혁신앙을 계승한 개혁주의의 길을 가기도는 오히려 개혁교회 이전으로 퇴행하려는 이상한 시도와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일련의 이런 행태들은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이고,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을 거부하고 가톨릭 쪽으로 가면 '교황'이 되려는 것이고, 이단이나 사이비쪽으로 가면 '교주'가 되는 길뿐이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현주소는 분명 '개혁교회'다. 그래서 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높다.

어디 그뿐인가. 교회가 세상의 희

망이 되고 빛과 소금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도 다들 알고 있다.

현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만들고, 회개를 이야기 하면서도 재를 무릅쓰고 통곡하는 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영적 쇠락'을 맞고 있다.

문제는 사회의 도덕적 해이보다 교회의 '영적 해이', '영적 쇠락'이다. 교회의 영적 부흥도, 사회의 도덕적 변화도 우리 손에 있지만, 나와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팀이 되지 못함을 가슴치며 안타까워해야 한다.

개혁자들의 정신처럼, '교회개혁'은 개혁자들의 정신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길은 없는 것일까.

오늘 한국교회는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개혁정신'에 관심이 없으니, 이를 이끌 영적 운동도, 영적 지도자도 찾기가 어렵다. 어쩌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자기 의'에 기초를 두고 '자기 수준'에서 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개혁의 메시지만 난무하지,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헌신적 개혁자들은 손에 꼽기에도 부족하다.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과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종교개혁 정신을 지닌 개혁신앙인, 개혁교회가 일어나 이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개인의 안일을 위해 교권에 안주하고 개혁 정신을 거부하는 흐름에 과감히 맞서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개혁교회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 잘못은 없는가?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잘못, 교회의 사유화에 침묵한 잘못,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 한국교회 전체를 돌보지 않은 잘못, 하나 되어 제대로 싸우지도 대응도 대안 제시도 못한 잘못, 말씀과 상관없이 삶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잘못,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아 누구도 책임 지지 않은 잘못, 다음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잘못 등은 참으로 부끄럽다.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감화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영혼이 가난하지 못하면 순수할 수 없고 현실에 눈을 뜨면 물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천민자본

주의에 물든 교회, 다음세대가 떠나는 교회, 돈으로 줄 세우는 교회, 돈으로 직분 주는 교회, 돈 아니면 무시당하는 교회, 교회에 자본주의가 들어와 어지러운 교회를 만들고 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힘들다. 수많은 연민과 갈등 가운데 내린 결론은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부터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보자. 거룩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시대의 우상들을 태워버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길 소망한다.

종교개혁주간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릇된 교리와 내부의 부패가 극심했던 중세 교회의 개혁과제가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에 바른 교회의 모습이 전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수도 있고,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삶'일 수도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개혁 정신'으로 시대를 읽고 나가자. 이제는 과거의 패거리 의식으로 버릴 시대는 지났다.

'교회다움'이라는 투명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혁 정신이 답이 될 것이다. 교회 스스로 먼저 바른 판단으로 한 몸 단져 부패를 막는 결단을 스스로 보이자.

개혁교회라면, '나부터 개혁'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려는 눈물로 영적 지도력,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정신 회복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종교개혁주간을 앞두고 개혁자들의 정신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 되어, '나로부터', '우리 스스로' 개혁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
진흥원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2년 겨울,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터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판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겨울,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 | |
|-------------|-------------------------------|
| 겨울 학기 접수 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5일(금) |
| 봄 학기 접수 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15일(월) |

■ 겨울학기 일정(9주) ■ 봄학기 일정(10주)
2022년 1월 3일(월) - 3월 4일(금) 2022년 3월 28일(월) - 6월 3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 # 112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27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는 선교의 꿈 이야기”

필자의 가까운 벗이 있다. 엘에이에서 20여 년 동안 개척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목회를 한다. 우리는 같은 선교 단체에서 동역한다. 그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도 하고 후원 선교사들도 정성껏 지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필자의 선교지에도 후원하고 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얼마전 그 친구가 전화했다. 교회의 내년 달력을 주문하는데 문득 멕시코 우리 신학교가 생각나서 달력에 들어갈 신학교 문구를 보내 주면 같이 주문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매년 우리 신학교는 각 교회들이 보내주는 달력을 받아 학생들 기숙사와 교실에 달아왔다. 이번엔 특별히 스페니쉬로 프린트된 우리 학교 이름의 달력을 걸게 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그 친구는 진심으로 사역자들을 섬기고 생각하는 목회자다.

필자가 엘에이에서 목회할 때는 같이 만나 식사도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많이 했던 든든한 친구이다. 그 친구 목사는 매년 단기선교를 1, 2회씩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목회자 휴가를 따로 갖지 않고 단기선교로 늘 대신한다.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지고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선교는 특별한 목적의 선교였다. 터키 현지의 장기 선교사 가정들의 자녀들과 14 일간의 합숙 수련회를 갖는 선교였다.

일반적 선교는 타민족 영혼들을 찾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 중에 친구를 사귀어 교회와 선교사들에게로 안내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진다.

이번 선교의 대상은 선교사들의 유치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사이의 자녀들과 시간을 가지며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일깨워 주는 목적의 수련회를 갖는 것이었다. 우리 선교 단체는 이 프로그램을 “샘물학교”라 명명한다.

일선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선교사 작정을 하면 준비 없이 부모를 따라 선교지에 와서 현지 학교에 다니며 생활한다. 현지에 적응

하지 못하여 잘못되는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 자녀들도 많다. 이에 매년 단기선교를 참여하는 사역자 중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 수년 전 시작하여 이제는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샘물학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샘물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후방에서 샘물학교 교사 자격 훈련을 수개월간 받고 수료해야 한다. 수료자들만이 샘물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그들은 한 팀을 이룰 때 강의 담당, 프로그램 담당, 식사 담당, 레크리에이션 담당 등의 사역자들이 고루 분포되어만 들어진다. 그들의 모든 사역비는 자비량이다. 이 선교를 위해 일 년 동안 물질을 모으고,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2주 혹은 3주간의 단기선교를 수행하고 오는 것이다.

친구는 다녀온 후에 너무도 귀한 체험이었다며 내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 주었다. 필자는 선교적 목회를 하면서 선교 비전을 갖고 있는 많은 목회자 친구들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이 귀한 동역자들이 만나면 당연히 선교지 사역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영혼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각기 다른 선교팀으로 구성되어 터키로, 이집트로, 모로코로, 베트남으로, 조지아로, 레바논으로 다녀온 선교지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나고 회심시키고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감동이다. 필자는 필자의 사역지인 멕시코에서의 단기선교를 말하고 우리 학생 중 세계 선교사 비전을 가진 학생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이런 목회자들의 교제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심기교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바울이 만난 경건한 이방인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고넬료, 루디아 그리고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 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 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이방인(Pious gentile)’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약신학자들은 이들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 혹은, ‘하나님 경배자(God-worshipper)’라고 부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하나님 경외자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례를 받고 개종자(Proselyte)가 되면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유대인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개종절차를 통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은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생활은 유대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인들과 꼭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출입하였고, 율법을 읽었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는 신앙생활에 유대인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은 1세기에 경건한 이방인(Pious Gentile), 즉,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들이 백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필러서(David Flusser)나 헝겔(Martin Hengel)과 같은 학자들도 유대인 백과사전의 통계에 동의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와 강제이주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각처에서 이방인 사회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반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전도를 받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건한 이방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방인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초대 교회 선교에 그들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고린도 회당 옆집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들이 1세기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 핀(Thomas M. Finn)박사는 사도행전에 이방인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 혹은 하나님 예배자(God-worshipper)라는 표현이 11번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전공한 대부분의 신약신학자들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11번의 경우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11번 등장하는 ‘경외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구절을 정리해 보면 10장 2, 22 그리고 34~35절입니다. 13장 16, 26, 43, 그리고 50절입니다. 16장 14절, 17장 4, 17절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광대합니다. 가이사라,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자’ 혹은 ‘하나님 경배자’라는 표현은 없어도 이런 조건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이방인이었지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 경외자’는 로마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있었다

고 봅니다. 낮게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부터 로마 황실의 실력자까지 다양했습니다. 문맹자도 있었지만 아테네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다고 주장합니다. 데오빌로는 상당한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약신학 학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백부장도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을 경비하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 경외자’ 그룹은 오랫동안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하나님 경외자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신약신학계에서도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경외자에 대한 첫 관심은 어이없게도 유대교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1877년 랍비 야코프 버네이즈(Jacob Bernays)박사가 예배자들을 분류하면서 ‘하나님 경배자(God-worshipper)’를 언급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1세기 회당 예배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웠던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신약신학은 사도행전 독자구분(Clarification of the audience)을 위해 하나님 경외자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독자는 이방인(Gentile), 하나님 경외자(God-fearers),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선교학에서는 ‘하나님 경외자’들을 1세기와 2세기 이방인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봅니다. 구약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아이티 투찌에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아이티 투찌에 마을 소망학교 어린이들에게 학교 가방을 선물합니다. 지진과 폭력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가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등 자연재해로 폐허가 된 아이티 재해 복구를 후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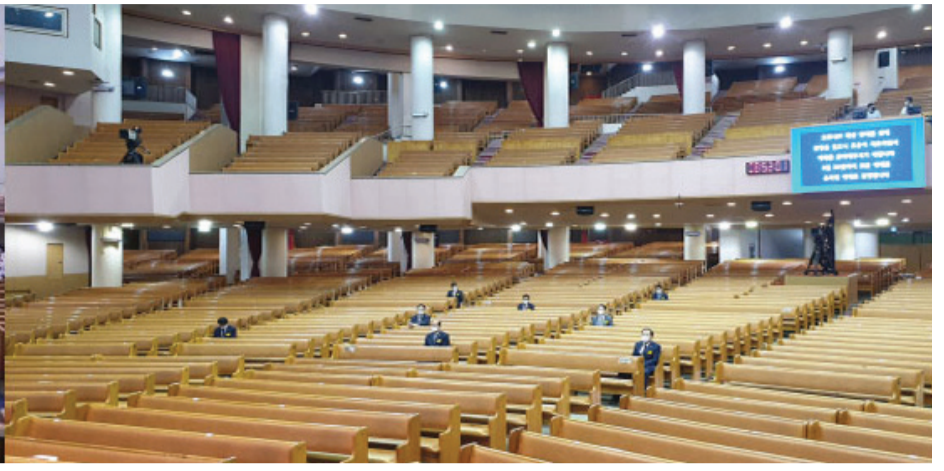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특별기고]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4)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회론



1장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1.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품다

종말론적인 모임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앞 뒤 문맥을 살펴보자.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속죄를 확고하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성경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규정들, 즉 제사장들의 제도, 희막, 동물제사 등 여러 요소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던 제사장의 임무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직면했는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도록 격려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영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행동을 택하는 자들도 있다.

이제 조금 더 본문을 좁혀서 한 구절에 집중해 보자. 히브리서 10장 19-25절은 히브리서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주제들로 상호 결속이 되어진다.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격려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가지고, 오직 공적인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불치의 질병을 가진 환자나 장애인이나 혹은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있는 성도, 또는 전쟁의 위험 상황에 있다면, 집회에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여

러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경건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위기의 시대에서도 특수한 상황들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특수한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모두 다 교회로 모여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안식일 성수의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보자. 먼저, 이 본문에 명확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신학자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에서 소집되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기본적으로 “모임”을 의미하며, 헬라 도시 국가에서 “백성들의 회합”을 뜻하는 “민회”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 더구나 초대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가졌다. 공개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와 성례, 기도, 교육, 권면과 격려, 구제와 자선 등을 함께 나눴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유무상통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모임을 단지 예배만을 위한 집회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증거하듯이, 초기 신앙공동체의 모임에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 찬양과 기원, 성례와 고백 등이 가장 중심된 일정이었기에, 이들의 모임은 당연히 교회의 활동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순리이다.

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이는 교회들

미국 로스앤젤레스 밴나이스 시에서 “그레이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는 비대면 예배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인용하면서, 예배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설교에서,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하는 임무”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예배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소송들에 대한 판결들이 나왔고, 대부분 교회가 승소했다. 필자는 이것이 오직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입장에서 나오는 무리한 주장이자, 성경의 예곡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목회자로서 본인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일 것이다.

다만, 필자는 히브리서의 이 한 가지 본문만을 가지고, 엄중하고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중요한 명령으로 내세워서, 교회에 출석하여 드리는 예배 모임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신앙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예배 모임에 불참하게 되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동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보다 더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는 무리수가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심한 충돌과 양쪽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회는 마냥 두 손을 놓고 정부당국의 예배 금지에 따라가야만 하는가?

교회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기 보다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만 한다(행 5:29).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를 명령하였고, 성도는 마땅히 따라가야만 한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 같이 함께 모임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성도 사이의 사랑과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성도들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앞에 살펴본 히브리서 본문의 맥

락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돌아보는 일에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와 격려의 상황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모임을 가지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권고라 하더라도, 모이기를 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성도의 궁핍과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은 성경적 교회가 지향할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교회가 모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재림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삶은 황폐한 상태로 변질될 것이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모임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냥 고난과 슬픔 속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히 13:5).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의견이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서로 느끼는 감정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아집착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행위이자, 배교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모임”은 과연 무엇을 위한 집회인가?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서, 성도들에게 참석하도록 격려하는 모임은 아마도 각 지역의 회당(synagogue)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추가적인 집회와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이미 문맥에서 채택된 단어를 검토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혹시 회당에서, 즉 아직은 교회로는 완전하게 차별화가 되어진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임은 회당 주변에서 모이던 작은 공동체의 회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초창기 교회는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과 같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발전하였다.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무

너진 후, 가이사랴, 안디옥, 에베소, 로마 등 사도들은 여러 형태의 초대 교회를 건설해 나갔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초기 형태의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은 회당에 모였을 것인데, 아마도 각 지역에서 교제의 모임을 가졌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장소도 역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지역별 종교집회소였는데, 초대 교회의 예배당 규모는 이들보다 훨씬 적었다. 이방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상당수가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배경과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모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회당 집회 이후의 소그룹 모임으로 해석할 때에도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되어지는 “회당”이라는 단어도 역시 여기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초대교회는 회당과는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다. 그 두 그룹은 서로 본질상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다. (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조직신학

기독교일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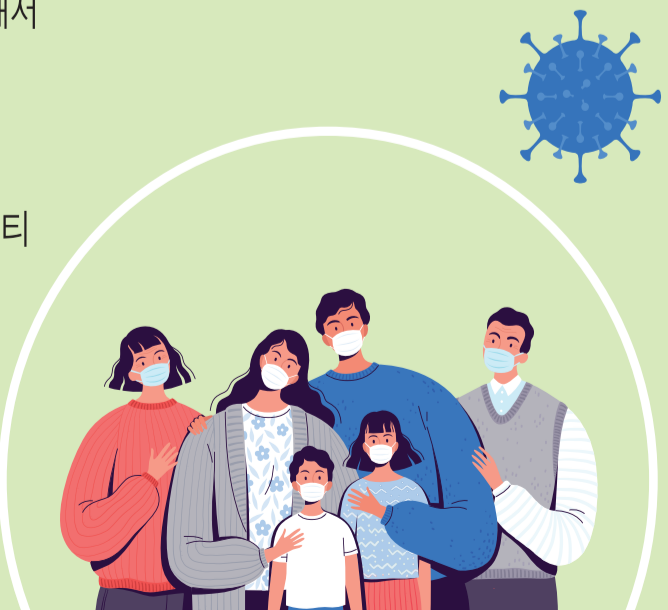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한국 교회, 내달부터 정원의 50%까지 대면예배 참석 가능

정부, 공청회 갖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공개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엔 인원 제한 없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엔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 안은 27일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제3차 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있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원위에 종교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2차 회의부터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차는 상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다.



20%를 채운 성도들이 손 들고 기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행되면 이를 4주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 전환을 판단할 기준은 ①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

차 80%) ②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③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대면예배 인원 기준 완화는 1차

개편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금지되고 있는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소강석 목사 '공개 사과'? 소모적 논쟁 비화 우려



해당 발언이 있었던 소강석 목사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소 목사 페이스북

오해 기반한 비판 재확인... "예배 잘못" 혹은 "정부에 사과" 발언 한 적 전혀 없어

이미 약 1년 전 일단락됐던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정 합동 전 총회장)의 '공개 사과' 논란이 안타깝게도 기독교계 내부의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다시 비화되고 있다.

소 목사는 지난해 11월 예정 합동 미래정책전략특별위원회의 '코로나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 가지를 잘못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대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의 진단대로 여론조사 결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조금 더 '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며, 사회적인 필요를 들어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과제인가에 대하여 생각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두고 한 매체가 <개신교계 최대 교단장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공개 사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후 다른 매체들이나 SNS 등이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를 확산시키면서, 마치 소 목사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잘못 대처했다"거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잘못이다"라거나 심지어 "한국교회가 정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처럼 왜곡됐다.

그러나 문맥을 살피면 자연히 알 수 있듯, 해당 문장 어디에도 그러한 의미의 '공개 사과'는 없었다. 이에 소 목사는 여러 차례 적극 해명하며 "일부 기자들이 공개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공개사과를 (했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했거나 저의 자성을 과도하게 표현했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욕한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분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이키는 작용으로 쓰임 받는다면 저는 좋다. 그

리고 제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한국교회가 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해당 발언의 진의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 최근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중심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비판들은 모두 해당 발언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상처들을 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가야 할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언행들은 자칫 내부 감정 싸움이나 비방전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정부도 교회를 쉽사리 제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 좋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릴 의로움과 용기를 지닌 목회자와 교인들도 많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부족한 목회자와 교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는 정부 당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는데, 그 일을 짊어졌던 이들에게 내부에서 과도한 비판을 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이 같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고, 미숙함도 있었으며,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함께 보듬으며 예배를 재건해야 한다. 더욱이 소 목사는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를 향한 사과'는 더욱 하지 않았다.

이대용 기자

한교총 '위드 코로나'로 완화된 방역 지침에 환영 입장 표명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고 종교 시설에 대한 제약도 상당부분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는 26일 성명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어나자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 한국교회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제약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방역 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예

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목표는 모두 같았다. 이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며 예배 회복에 집중해야 때"라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종교시설 세부 방역지침을 스스로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백신 접종 완료자로서 성가대와 찬양팀을 운영하는 것과 설교자의 설교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

늦은 감 있지만 교회 예배와 사회 일상 회복 시작 표현 방식 달랐을지라도, 마음과 목표 모두 같았다

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임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 회복 시작으로 반기며, 회원 교단과 교회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연·한기총 등 타 연합기관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 교계 단체들에 대한 격려도 덧붙였다.

한교총은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 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과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표현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연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자율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며 "한국교회여,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 가능하고, '백신 패스'(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큰소리로 함께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된다.

이대용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제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필요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

196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연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목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대한 후회 원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가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훈장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념 행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8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서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교, 정로회신학교, 연세대학교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의뢰목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성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객원교수, 호남대학교 이사, 한국노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클란, 클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정길 6 ☎ 02-747-1004 클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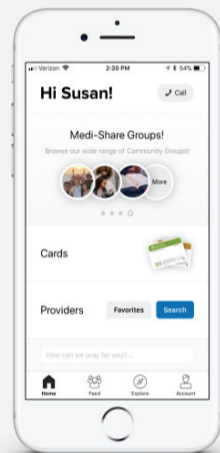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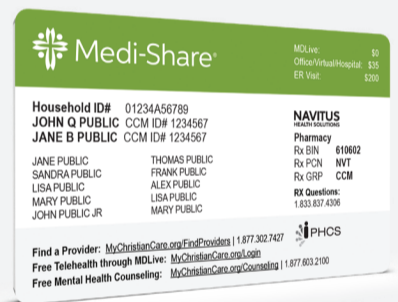
미전역 40만 회원과 90만 PPO 네트워크의 **Medi-Share**가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무제한 의료비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MDLive를 활용, 24/7 미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Medi-Share 앱을 사용, 편리하게 PPO 네트워크내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으세요.



회원은 간단히 멤버십 카드 제출, Medi-Share와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 처리를 합니다.

Medi-Share의 무제한 무료 혜택들과 할인 혜택들



원격의료
(Telehealth)



원격상담
(Telecounseling)



치과 할인
(Dental)



안과 할인
(Vision)



의약품 할인
(Pharmacy)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 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최대 매월
\$128
까지 절감

2인 가정
최대 매월
\$370
까지 절감

3인+ 가정
최대 매월
\$570
까지 절감

65세 이상
매월
\$70
부터 시작

메디세어는 크리스천 의료비 나눔 기관입니다.
메디세어는 보험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회원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2, 가입문의 213-434-1170, 847-901-32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zusa2@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리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주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1인2세를 책임지며, 이단(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oin 2번)
T. (213)386-223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번 Rampart Blvd 교로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잠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잠상예배)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주목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사용 배아 함께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O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인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주목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교목부 주일예배 오후 8:00
유주목부 오전 11:00 (유주목부예배 오후 8시)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주목부예배 오후 7: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EM: 오후 1:30
T. (818)363-6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주목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유주목부 오전 11:00

유주목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리스트로벨 목사 “천국과 지옥은 매우 현실적”



리스트로벨 목사. ©새들백교회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리스트로벨(Lee Strobel) 목사가 최근 신간 “The Case for Heaven: A Journalist Investigates Evidence for Life After Death”(천국의 사례: 저널리스트가 탐구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증거)을 출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트로벨 목사는 이 책에서 성경에 기록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조명한다. 그는 임사 체험, 철학 및 종교에 대한 연구를 사용하여 천국과 지옥, 영생의 개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개를 제공한다.

CP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을 읽는다면 영원하신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경험적 발견의 진리를 증거할 가능성이 있다. 잠시 멈추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자문하게 될 영적인 인식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트로벨 목사는 이 책에서 ‘천국을 상상하라’(Imagine Heaven: Near-Death Experiences, God’s Promises, and Exhilarating Future That Awaits the Exhilarating Future)를 저술한 텍사스 게이트웨이 교회를 맡고 있으며 임사체험 연구자인 스트로벨 목사의 동료 존 버크 목사는 증거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내세의 현실에 대해 논리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지 설명한다.

버크 목사는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900개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많은 회의적인 연구자들도 이제 임사체험이 우리에게 내세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대안적 설명도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결론만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스트로벨 목사는 “독자들은 지옥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이에 대해 두 챕터를 할애했다. 그는 “천국이 실재한다면 지옥도 실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종류의 증거가 양방향을 가리킨다. 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서 그것을 다루고 싶었다”라고 했다.

그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소멸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하는 ‘영혼 절멸설’(annihilationism)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은 가르침이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성추행 혐의 논란故 라비 재커라이어스 딸, 새 사역 시작



RZIM CEO 사라 데이비스.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되었던故 라비 재커라이어스의 딸인 사라 데이비스가 아버지가 설립한 사역을 떠나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지난 2년 동안 라비 재커라이어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RZIM) CEO로 재직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사망한 재커라이어스 박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와 후속 보고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RZIM 국제 네트워크의 캐나다 지부는 폐쇄되고 영국 지부 역시 해체됐다.

이 단체의 CEO인 데이비스 역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다. 미국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티투데이’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이제 RZIM 사역을 그만 두고 조지아주에 법인 설립 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변증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는 전 RZIM 변증사인 알리시아 우드(Alycia Wood), 알렉산더 캐롤(Alexandra “Xandra” Carroll), 루이스 필립스(Louis Phillips)와 합류한다고 크리스천티투데이는 보도했다.

이 소식에 전 RZIM PR 매니저인 루스 맬호트라(Ruth Malhotra)와 전 RZIM 이사인 카슨 화이트나워(Carson Weitnauer)는 별도의 트위터를 통해 “실망했다”라고 비판했다.

데이비스는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서 “아버지에 대한 혐의를 다루는데 있어 실수를 저질러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며 “나는 완전히 황폐해졌다. 여러분을 염두에 두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시시 와이언스, 美 도브어워즈 올해 가스펠 가수 등 4관왕



가스펠 싱어송 라이터 시시 와이언스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CCM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평가받는 도브 어워즈(Dove Awards) 52회 시상식이 내슈빌 소재 립스콧 대학에서 19일 개최됐다. 올해 4관왕의 영예는 흑인 가스펠 여가수인 시시 와이언스에게 돌아갔다. 와이언스는 올해의 가스펠 아티스트, 가스펠 워십 음악, 가스펠 워십 음반 및 영감을 주는 올해의 노래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의 아티스트 상은 작년에 이어 포 킨켄트리에게 돌아갔다. 포 킨켄트리의 곡 "어 드러머 보이 크리스마스(a drummer boy Christmas)"는 올해의 크리스마스/스페셜 이벤트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번 쉽 콘서트 필름(burn ship concert film)"은 장편 비디오 OTY 부문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노래 상은 카리 조브, 코디 카네스와 엘리베이션 워십이 부른 "더 블레싱(The Blessing)"이 차지했다. 이 노래로 리드 싱어인 크리스 브라운과 작곡가 스티븐 퍼틱은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의 작곡가 상은 제이슨 잉그램과 블랜든 레

이크가 거머쥐었다. 엘리베이션 워십과 레이크는 "그레이브즈 인투 가든즈(Graves into Gardens)"로 워십 음반 노래 상을 받았으며, 엘리베이션 워십은 매버릭 시티 뮤직과 함께 올드 교회 음악 부문에서 올해의 워십 앨범 상을 수상했다. 전체적으로 엘리베이션 워십과 블랜든 레이크는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올해 최고의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의 신인상의 영광은 미국 예배 음악 그룹인 매버릭 시티 뮤직에게 돌아갔다. 워 더 킹덤은 "홀리 워터(Holy Water)"로 올해의 팝/현대 앨범과 올해의 현대 기독교 예술가 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합합 아티스트 레크레는 "딥 엔드(Depp End)"로 올해의 랩/힙합 노래 상을 받았다. 가스펠 뮤직 협회(Gospel Music Association, GMA)에 의해 투표된 올해의 후보들은 4,600개 이상의 곡들 가운데 선정되었다.

김유진 기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

"예수 따르면 편안? 성경의 가르침 아냐"

기독교 바르게 이해하고 미전도종족 현실에 눈뜰 것 촉구

미국 버지니아 소재 맥린성경교회(McLean Bible Church)의 담임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플랫 목사는 최근 주일예배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외지에 전파하며 어려움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며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랫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에서 "선교사들은 자연적 도전, 지리적 도전, 정치적 도전, 갈등, 전쟁, 발전적 도전, 경제적 불안정, 문맹, 깨끗한 물이나 약의 부족, 사회적 도전, 노예제, 인신매매, 폭력, 범죄, 민족적 긴장, 피난처 이전, 언어적 도전과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서 미전도종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 접근하기 위험하다"고 했다. 플랫 목사는 "여러분들 중 일부는 (선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목록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저를 제외하고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다.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위안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그것은 이 책(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전반에 걸쳐 판매되고 있는, 이 책의 매우 왜곡된 버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모든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오지에 복음을 전하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곧 무덤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 ©남침례회 제공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와 화목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지상의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 사람들을 지옥에서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내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전도종족의 현실에 눈뜨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도 미전도종족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또는 가끔씩 그들에 대해 듣고 생각하지만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께 세상의 긴급한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아울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7천 개 이상이다. 그 중 약 절반은 여전히 성경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세계의 많은 외딴 지역에서는 선교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젠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일-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일-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일-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족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선교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김한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새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평신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일-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전/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전/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아시아와 아프리카 가톨릭 신자 증가... 유럽은 감소”

바티칸 관영 통신사 피데스 연례 인구 조사 발표

가톨릭 신자 숫자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및 아시아에서 증가했지만 유럽에서는 감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발표된 바티칸 관영 통신사인 피데스의 연례 인구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숫자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천5백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 숫자는 29만2천명으로 감소했다. 통계 발표는 '세계 선교의 날'을 앞두고 나왔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계 인구는 약 76억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140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유럽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13억 명으로 전년 대비 1천540만 명이 증가했다. 통계를 제시한 영상 프리젠테이션에 따르면 2019년 가톨릭 신자는 세계 인



©Pixabay

구의 17.7%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가톨릭 신자 숫자는 830만 명, 미국에서는 530만 명, 아시아에서는 190만 명, 오세아니아에서는 11만8천명이 증가했다. 가톨릭은 아프리카 인구의 19.4%, 아메리카 인구의 63.8%, 아시아 인구의 3.3%, 오세아니아 인구의 26.3%를 구성한다고 통계는 밝혔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수가 증가한 가운

데 전 세계 주교 수는 13명 감소한 536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제 수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271명이 증가한 41만4천33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평신도 선교사 숫자는 41만440명으로 총 3만4천252명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교육 분야에서 가톨릭 교회는 7,532,992명의 학생

과 72,667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98,925개와 학생 35,188,771명, 49,552개의 중등학교에 19,370,763명의 학생이 있다. 성당은 또한 2,395,540명의 고등학생과 3,833,012명의 대학생을 돌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자선 및 의료 센터는 5,245개의 병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프리카(1,418개)와 아메리카(1,362개)에 있다”라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가 감독하는 다른 자선 단체에는 “주로 아시아(269)와 아프리카(201)에 있는 나병 환자를 위한 요양원 532개와 주로 유럽(8,031)과 아메리카(3,642)에 위치한 노인, 만성 질환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15,429채, 주로 아시아(3,233)와 유럽(2,247)에 소재한 고아원 9,374개, 주로 아시아(2,973)와 아메리카(2,957)에 소재한 탁아소 10,723개, 주로 유럽(5,504)과 아메리카(4,289)에 소재한 결혼상담센터 12,308개, 그의 사회재활센터 3,198개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황청 선교단체 회장인 조반니 피에트로 달 토소(Giovanni Pietro Dal Toso) 대주교는 통계에 대해 “비기독교화가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Premier Christian News)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 양성을 위한 과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선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선교로의 부름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미국 선교사 납치’ 아이티 폭력조직, 몸값 1700만불 요구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Unsplash/Robin Canfield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 17명을 납치한 아이티 폭력조직이 송환을 대가로 총 17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0일 리스트 키텔 아이티 법무장관이 납치범들의 요구 조건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피랍 인원에는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과 5명의 아이들이 포함

돼 있다. 이들은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자선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소속 선교사이며, 빈곤과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도와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의 한 고아원을 방문한 뒤 공항으로 향하던 중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다.

키텔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에서 폭력 조직이 “1인당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폭력 조직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상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납치 배후로 지목된 단체는 아이티 갱단인 ‘400마우조’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교사들을 포르토프랭스 북동쪽으로 12.9km 떨어진 크로이스 데스 부케 지역에서 납치했다.

미 CNN에 따르면, 400마우조는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같은 지역에서 카톨릭 사제 5명과 수녀 2명을 납치했다가 몸값을 받고 풀어줬다.

키텔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납치범들은 인질에게 해를 입힐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경고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크리스천 에이드는 성명을 통해 “인질로 잡힌 사람들, 납치범, 피해 가족과 친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결정권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와 FBI가 이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인도서 목회자 7명, 반개종법 혐의로 경찰에 체포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 당국이 ‘개종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기도회 중이던 기독교 목사 7명을 최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가톨릭 아시아 뉴스연합을 인용해 지난 17일 경찰이 이 목회자들을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인터네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목회자 7명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며, 이들의 변호사인 아시시 쿠마르 씨는 “보석 신청을 진행하여 곧 출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 50명을 구금했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UCA뉴스는 이날 기도회 장소의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가톨릭 수녀 2명도 경찰에 체포되어 저녁까지 억류됐다고 전했다.

인도선교사협회(Indian Missionary Society) 소속인 아난드 매튜 신부는 “경찰이 목사들과 함께 수녀들을 입건하려 했으나 목사와 교인들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자 이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을 개종하기 위해

강제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개종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인도의 9개 주 중 하나이다. 개종금지법은 주로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기독교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앞서 인터네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인도의 인구 통계가 힌두교 과격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대량 개종 음모가 허위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1951년 인도는 독립 후 처음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3%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1년 조사에서도 기독교인은 여전히 2.3%에 불과했다.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인도는 박해 지수 10위에 올라와 있다.

오픈도어즈가 분석한 인도 팩트 시트(Fact Sheet)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들이 힌두교인이어야 하며, 인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특히 힌두교 출신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618 S. Western Ave #203A, Los Angeles, CA 90006
Tel: (323)943-0301, Fax: (323)9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kmail.com

선택의 기로에서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였는지,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한 것이었는지, 혹은 유혹에 끌린 죄였는지, 하나님을 생각한 믿음이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교회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 교회 문을 열면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좀 더 안전하고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비좁은 우리 교회 시설에서 최선을 다해 외부 확장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식당 공간 외에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밥상 교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 식당을 유지할 것인가, 아이들의 예배장소를 만들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교회 리더십은 다음 세대를 향한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습니

다. 또 하나 팬데믹 상황에서 내린 중요한 선택은 기존 4개의 성가대와 2개의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베델 콰이어와 베델 오케스트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1-3부, 헵시바 예배를 팬데믹 이후 변화에 맞춰 새롭게,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를 어느 예배에 세우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장소가 없어서 중고등부가 합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연습실을 중고등부가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를 모이기 제일 어려운 시간이지만, 1부에 세우고 주일 2, 3부 시간에는 성가대 연습실을 중고등부 예배실로 쓰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27살 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며 살이 좀 찌는 것 같더니, 몇 날 며칠을 아침마다 꾸준히 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내려주면서 아침마다 뛰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Life is a matter of choice(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듣고 와서 설교자인 아빠에게 '설교'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겨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은 모두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전적인 내 의지의 선택이었건, 떠밀려 할 수 없었던, 나의 선택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교훈 삼아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오늘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유익이 있었는지,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지, 내 편의

속임수의 명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드는 것 같다.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동산은 아주 풍요로운 동산이었다.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된다. 하와는 그 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왜일까?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사탄이 하와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속에 속임수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해답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뱀이 사용한 주어 "너희가" 이다.

뱀은 우리 삶에 있어 기본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왜곡하고 부인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도록 인간에게 속임수를 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공평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이 주신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의 나의 목적이 앞서가는 시대적 착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다. 그렇다 사탄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된 마음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유혹은 항상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지혜롭고 능력이 충분하기에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는 교만에 눈에 빠지게 한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기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창세기 3장 4절 - 5절

지금도 그리스도인 모두는 사탄의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속임수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트리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탄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라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미혹당한 하와의 이야기를 보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속임수는 하와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울무와 같다. 과연 하와는 무엇이 부족하여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와는 누구보다도 완벽한 조건과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알기에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은 우리를 더욱 고민하게 만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운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제2장 "하나님만 말씀만 갈급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성경은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 있는 역사다. 문제는 뭘 알아야 책임자든 사장이든 해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니 머리통이 썩통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이 서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손에 성경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명령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든 각오가 있는 형제에게 중국에 가서 성경을 구해 오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부탁이 그를 사지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을 구해 오라는 나의 부탁을 듣고 중국에 가서 1개월 남짓 타국을 돌아다니다 간신히 성경 두 권을 구한 형제는 돌아오는 강을 건너다 그만 경비대에 붙들리고 만 것이다. 형제는 경비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경비대가 발사한 총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날이 1996년 4월 6일이었다.

정말이지 지금도 나는 총탄에 맞아 시체로 변한 형제의 육신이 경비대원들의 손에 개처럼 질질 끌려가며 서걱서걱한 눈 위에 남긴 김뽕은 피 자국을 잇을 수가 없다. 우리 손

에 들어오지도 못한 성경 두 권과 바꾼 형제의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그 길로 중국을 넘어갔다. 내가 직접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경을 넘었지만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난감했다. 결국 나는 성경도 구하지 못한 채 산중을 돌면서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국경을 넘었다.

그때 바로 거기서 경비대를 만나고 말았다. 안 그래도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데다 죽을 고생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새까맣게 어린 경비대가 토치카에 몸을 숨기다가 나타나서는 이 새벽에 왜 돌아다니냐고 따져 물으니 갑자기 역정이 나서 욕설을 막 퍼부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또 어디 갔다 오는지 네 어미한테나 물어봐라. 이 쥐새끼 같은 새끼야!"

그러자 어린 군인이 총부리를 내 눈앞에 겨누고는 안전장치를 철거

덕 푸는 것이었다. 나는 더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어디 한번 방아쇠를 당겨 봐라. 이 종간나 새끼!"

총부리에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경비대가 총검으로 내 옆구리를 인 정사정없이 찔러댔다. 내장을 비트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더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런 와중에 특수부대 출신의 장교였던 내가 이런 코흘리개들한테 당할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는지 그들의 총을 빼앗아 사정없이 쏘쳐댔다. 그러자 저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대들이 이리 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라도 총검에 찔려 죽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군대병원에 실려 가 치료라도 받았을 텐데, 어린 경비대들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으니 치료는 고사하고 감옥에 끌려갈 판이었다. 경비대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차 싶어 줄행랑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총검에 찔린 상처에서 얼마나 많은 피

가 쏟아지는지 배를 움켜쥔 수 위로 피가 줄줄 흘렀다. 그런데도 정신없이 달려 산중까지 가서야 풀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흔들리는 통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 몸이 썰매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썰매를 두 여자가 끌고 있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온몸을 떨다가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 보니 어느 가정집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그 집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여자 반동들의 집이고 하나님 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여자 순교자의 집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자매들의 도움으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농장으로 돌아왔다. 마을에는 맹장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성경도 구하지 못한 채 경비들에게 곤혹을 치른 것이 두고두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계속)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1)

창세기 21:1-21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자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자가 임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롭게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 세라 6 사자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니 7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짓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중략)...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한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에 사라의 남편에게 자기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 애굽 태생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후손을 잇게 하라고 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아 주어서 미안하고 그 지역의 풍습이 일부 다처제가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초보단계에 있었던 사라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시집을 때 데려온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 남편에게 미안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행의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데 안 믿는 세계의 풍속을 흉내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약 3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3년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오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세기 15:2-5)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사를 약속하셨고 그에게 약속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 (後繼者)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고 아기가 자라 쫓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데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지켜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열네 살 차이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신의 신세가 망쳐졌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

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보다도 첫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름이 유명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세 번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므로 죄악에 찌들다가 지옥가게 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될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이 새기 바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들에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햇빛은 뜨겁고 사막은 타 오르고 목도 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17살 짜리 아들을 가시 떨기 나무 그늘 아래다가 앉혀 놓고 어머니가 화살 한번 쏘면 가는 거리, 300M정도 가서 그 아들을 마주보고 앉았다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로 태어난 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늘 함

께 하셨습니다.

본문 19-21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른 나라가 아랍이 되었고 그 아랍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랍 계열은 42개의 크고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랍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거의 4천년 세월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랍계열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숫적으로 많음에도 이스라엘을 이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시라라 하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1:11-13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6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랍계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을 따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TV 한국 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교신문 | 3면 설교 |
| CTS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외 선교 설교 | | | |
| TV 미국 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 CTS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LA 미주 복음방송 |
| 미국 신문 설교 | | | |
| 기독교일보 |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AM1310 기본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지하숙소복원과 복년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현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숲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년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자존감과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 라는 자존감으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라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
주디스 벨몬트 | 홍유숙 역
미래타임즈 | 280쪽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항상 후회하는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가?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가이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격심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쉽다.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고 복돋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깨닫고,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에 집중하자.

정말 지켜야 할 것, 자존심 아닌 자존감 자존심은 주변과 비교하면서 갖는 마음 자존감, 비교보다 자기 존재 자체 인식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자존심 상해”, “넌 자존심도 없냐?”, “난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을 지켜야지”.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과연 자존심일까? 아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크다. ‘자존심’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지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심’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낮아진다. 자기보다 낮은 수준을 만나면 우쭐해진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다.

이에 반해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다. 곧 자존감이란 “나는 잘났다”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 나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다.

웨인 다이어는 《인생의 태도》에서 이렇게 말한다. “청중 앞에 섰을 때 박수를 치거나 웃지 않는 한 사람만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난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그 사람의 의견을 나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와 관계 없다는 것일요. 자존감은 ‘나는 온전하다. 가치 있다. 매력적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용히 사랑하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세상과 공감하는 능력도 망가진다. 인간관계, 일, 태도, 선택, 신체 건강, 심지어 수명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자존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주디스 벨몬트는 심리치료사이자 동기 부여 연설가이다. 정신 건강 코치로 일해 왔다.

저자는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리상담가로 일하면서 낮은 자존감이야말로 인생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며, 이로 인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 덕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실용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10장에 걸쳐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말한다. 또한 각각의 장에는 5개의 팁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스타일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책을 처음부터 다 읽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꼭 짚어서 읽어도 된다. 각 장의 5가지 팁은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고, 팁과 연습 내용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주제를 골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는 10개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제마다 다루는 아이디어와 연습 내용을 폭넓게 익히려 하면 적어도 한번은 완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해 읽고 연습하라고 말한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반복이 제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10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가치 놓이기: 낮은 자존감 극복하기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되, 과거가 현재보다 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과거를 다시 경험하고 해집는 대신, 과거에서 배우고, 치유하고 성장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를 억누르는 대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자신의 불완전성 받아들이기: 완

벽주의 극복하기
완벽주의는 자존감을 훔쳐가는 주범이다.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 완벽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완벽주의는 당신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건강한 사고방식 만들기: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전환
생각을 바꾸면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고방식이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많다. 행복을 만드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4. 과거 인정하기: 과거에 갇히지 말고 과거에 교훈 얻기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다. 과거에서 배우거나, 과거에 갇혀 살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남겨진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따져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외상후 성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5. 자기 자비 키우기: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 배우기
자존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조건부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실수를 저지르는 자신조차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본다. 조건부적 자존감 대신 자기 자비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6. 마음 챙김 배우기: 현재에 집중하기
마음 챙김이란 편견 없이 인식하는 연습이다. 꼭 막힌 도로 한가운데 운전석에 앉아 있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수업을 듣거나 게임을 하든, 텔레비전을 보거나 세탁기를 돌리든,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풍성하게 경험한다.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신,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다.

7. 자기 돌봄 익히기: 스스로 책임지기
자기 돌봄이 지나치면 이기적이 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나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이들도 돌볼 수 있다.

8. 자기 주장 키우기: 목소리를 내고 선을 긋기
‘나’로 시작하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면 자신감이 샘솟고, 다른 이들과 한층 가까워지며,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하라.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응원단이 되어주자.

9.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 바람직한 지원자 확보하기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애정 관계를 구축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든든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인생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10. 나의 삶 인정하기: 나와 나의 인생 사랑하기
나의 인생이 자랑스럽다면,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비극적인 인생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를 생기기 된다.

그리스도인, 자존감의 근거 말씀에 뒤야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 걸작품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의 근거를 무엇보다 말씀에 두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니다. 나를 낳아주시 부모가 말해주는 ‘나’도 정확한 ‘나’가 아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말해주는 ‘나’도 정확한 ‘나’가 아니다.

정확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나’다. 나를 만드신 분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1.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2. 파트타임
3.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초등부(4-5학년) 전도사 풀타임 사역자 청빙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훈련할 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 모집 영역
 - 초등부 (4학년 - 5학년) 영어예배
 - KM website: www.bkc.org
 - CM website: http://churchschool.bkc.org/jr-elementary/
 - Salary: \$3,500 - \$5,500 monthly (Depends on Experience)
- 자격 조건
 - Have a calling to serve our Lord Jesus Christ
 - Responsible for the spiritual growth of the students in the Children's Ministry (4th to 5th Grade)
 - Oversee and lead/plan weekly Children's Ministry Service /Sunday School on Sundays (Preaching sermons, coordinating praise/worship, and preparing Bible studies)
 - Develop and implement a vision for the Children's ministry with short and long term goals
 - Recruit, teach and lead teaching staff to be equipped in teaching and nurturing the spiritual growth of the students
 - Plan and lead annual events i.e. Vacation Bible School (VBS), Family Fall Fest, Easter Activities, etc.
 - Attend weekly staff meeting
- Requirements:
 - Master's degree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At least 3 years previous experience in serving or leading Elementary ministry
 - Fluent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a plus)
 - Must be able to work in the US
- Application Instructions:
 1. 2 sermon samples
 2. 2 personal reference
 3. photo
 4. email resume to jinahyi@bkc.org & pauljeong@bkc.org.

*Please note that while all applications are appreciated, only those candidates selected for an interview will be contacted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학교, 교회학교, 마그네틱 칼럼, 목회자료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깐!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임플란트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할리우드 영화 <둔>(上)**

영화 <둔>, 히피적·종교통합주의적 세계관 대서사시

тол킨 <반지의 제왕>이 전설 느낌 강하다면 <둔>은 직접 제도화된 종교 이야기 건드려 각종 종교 섞은 '베니 제서릿', 우주적 영향 1960년대 이후, 미국 내 분위기 변화 반영

◆SF와 종교: 종교통합의 이상을 반영한 영화 <둔>

<둔>(Dune)은 미국의 기자 출신 소설가 프랭크 허버트(1920-1986)가 1965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SF소설 시리즈이다.

<둔>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SF가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서 종교와 과학기술, 정치와 전쟁,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담당하는 역할을 깊이 숙고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과 유사하게 다방면의 철학적, 문화적, 사회적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소설로, 20세기 SF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둔>의 영화화는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소설 <둔>의 세계관과 서사 설정은 작품 속에서 무려 16,000여년의 가상 역사를 통해 축적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2시간 남짓의 러닝타임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각본가, 감독, 그리고 제작사 사이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커다란 의견 차이가 생겨나 두어 차례 영화화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 1984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기어이 <둔>의 영화화에 성공했다. 1984년판 <둔>은 영상미나 특수효과 측면에서 SF영화계에 오래 기억될 업적을 남겼지만, 역시 서사면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영화화된 <둔>이 10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드니 빌뇌브가 감독을 맡아 총 2부작으로 제작 확정된 작품이다. 최근 크게 발전된 CG 및 영상 기술을 동원해 만들어진 덕에 영상미 측면

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적절히 반영하는 연출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평단의 무난한 지지를 받고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영화 <둔>의 서사를 지탱하는 근간은 종교이다. <둔>과 비슷한 수준의 거대한 세계관을 정립한 판타지 대작 J. R. R. 톨킨의 <실마릴리온>과 <반지의 제왕> 역시 북유럽 신화와 전설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톨킨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마릴리온>과 <반지의 제왕>은 종교보다는 전설의 느낌을 강하게 드러내는 반면, <둔>은 직접적으로 제도화된 종교 이야기를 다룬다.

<둔>의 서사를 이끄는 종교는 작품 속에서 전 우주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베니 제서릿(Bene Gesserit)이다. 베니 제서릿은 인공지능과 기계물에 익숙해져 인간의 본모습을 잃어가는 인류의 미래에 불안감을 느껴 고도로 발전된 기계문명을 전복하고 그 위치를 인간이 다시 찾도록 하려는 광신적 종교집단이다.

<둔>의 원작자 허버트는 베니 제서릿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설정을 창안한다. 베니 제서릿의 교리는 과거 지구에 존재했던 여러 고등종교, 즉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각종 종교사상을 통합한 결과물이라는 설정이다.

<둔>에 소개된 베니 제서릿 교리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역할을 기계로 대체하지 말 것'과 '인간의 정신을 모방한 기계를 만들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지적, 정신적 활동은 오로지 인간만이 담당해야 하며, 인공지능을 다시 제작하지 말



2021년 새로 개봉되는 우주 대서사시 영화 <둔>.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중심에 위치한, 고도로 발전된 기계문명 시대에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가던 것, 그리고 인공지능에 심히 의존하여 예측되었던 역사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

◆SF와 기독교: 히피 문화에 의한 기독교 신앙의 소외

그렇다 해서 베니 제서릿이 자연상태의 인간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집단은 아니다. 인공지능과 기계문명을 대체하는 '개량된' 인류의 양산이 이 종교집단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따라 이 종교에 귀의한 이들에게는 거의 동물의 품종 개량이나 다름없는 우생학적 실험이 가해진다. 그리고 '스페이스 멜란지'라고 불리는 특수한 물질을 통해 인간의 지능, 정신력, 직관력, 그리고 예지력을 키우는 약물 실험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베니 제서릿은 이를 통해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인류의 구원자를 얻어내고자 한다. 이들이 말하는 인류의 구원자란 과거 인류가 가졌던 모든 기억과 지능, 정신력, 그리고 영감과 예지력을 한 몸에 갖춘 초인에

가까운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런 부류의 메시아 사상은 기독교 교리를 본딴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니 제서릿은 인류의 힘으로 이런 구원자, 초월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둔>의 서사는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의 모티프를 차용하면서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둔 인류의 자력구원에 관한 종교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서구 종교 역사에 오랜 시간 영향력을 행사해 온 영지주의 사상 역시 관여되어 있다. 플라톤주의를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한 영지주의는 실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숭한 이단을 양산해낸 원인이 되는 종교사상이다.

<둔>의 종교 이야기의 주로 불교적이고 영지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데는, 이 작품을 연재하던 당시 원작자 허버트를 둘러싼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

소설 <둔>의 연재가 시작되던 1965년은 미국 사회 내에서 조금씩 히피 운동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히피 운동은 당시 미국 서부에 유입된 인도와 일본의 종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던 일본 선불교와 티벳 불교의 가르침은 소설 속에서 인간 정신의 고양과 우주적 일체에 대한 모티프를 제공했다.

또 마리화나를 통해 집단 환각상태에 빠지기 일쑤였던 히피들의 행각은 스페이스 멜란지라는 중독성, 향정신성 물질의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설정들을 통해 <둔>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무한한 진화 및 진보를 믿는 히피들의 종교적 이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초 <둔>의 역사적 배경이 인류

가 종말에 이르지 않고 1만 년 넘게 우주 전역에 퍼져나가 생존하는 방향으로 펼쳐진 것도 인류의 자주적인 진보와 변형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을 배제한 채 인류 스스로 이뤄낼 순수하게 인간중심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에 언급된 바 있는 종교 없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둔>의 종교, 베니 제서릿은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념의 체계이다.

결국 1960년대 소설 원작으로부터 이번 2020년대의 영화까지, <둔>이라는 작품의 탄생과 흥행은 미국 내 기독교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 약화를 표시하는 문화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인간의 현실과 삶을 변혁시키는 진지한 신-인 관계 형성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히피 문화운동의 확산을 기점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엄밀한 영적 실상과 진리를 담은 계시가 아니라 잘 짜여진 종교적 서사 체계 취급을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성경은 그저 대중문화에 여러 유용한 모티프를 제공해주는 신화나 전설 수준의 문헌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그에 비해 불교나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 같은 종교들은 인류의 앞날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사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둔>의 종교서사는 이처럼 196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 내 종교적 분위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둔>의 주인공, 종교집단 베니 제서릿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정신적 능력을 갖춘 인간 폴 아트레이드(티모시 샬라메).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미스바 금요성령집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왠지 모를 인생의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에눌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사탄은 수없이 공격하며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금요성령집회로 인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스바 금요성령집회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웁시다. 누구나 오십시오, 오시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적인 신령한 은사, 그리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 일정

-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7:30
- 10월 29일(금) 오후 7:30
- 11월 5일(금) 오후 7:30
- 11월 12일(금) 오후 7:30

■ **장소** : 주님의 교회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주님의 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 대예배 매주 주일(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 저녁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시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교회
The Lord's Church 333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700-7311

강사: 최 훈 목사
주님의 교회 담임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과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